CAPITAL GAIN TAX

미국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문가 세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 중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일본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CAPITAL GAIN은 투자를해서 얻은 이익금이라는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아파트 건물 이라면, 처분 했을 때의 가격에서, 처음 샀을 때의 가격을 뺀 순익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십만 달러에 사서 백만 달러에 팔았다면, 이익금은 구십만 달러가 되는 셈이지요.

미국에서는 자식이나 또는 제삼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시에 넘겨주는 증여이고, 또 하나는 사망시에 넘겨주는 유산입니다. 양도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세법상, 증여에 의한 양도와 유산에 의한 양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에의한 양도의 경우,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물려준 재산을 산 가격이 십만 달러라면, 물려 받은 사람이 산 가격은 그대로 십만 달러로 인정이되므로, 이 재산을만 달러에 팔 경우에 이익금은 구십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유산에의한 양도의 경우, 물려받은 사람의 재산의 산 가격은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사망한 당시의 재산의 싯가를 산 가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십만 달러가 아닌, 백만 달러가 산 가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백만 달러에 그 재산을 처분한다면, 이익금이 한푼도 없게됩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일본 남자 한 분이 찾아왔는데, 사연이 이러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차 세계대전 이후에, 로스엔젤레스 지역에 십만 달러를 주고 비교적 큰 아파트 건물을 하나 구입했고,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연로 하셨답니다. 한국 어머니와 비슷한 일본 어머니는 살아생전 가지고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 주어야겠다고, 증여로 아파트 건물을 자식에게 양도를 해 주었습니다. 증여이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님께서 건물을 산 가격인 십만 달러에 넘겨받았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건물을 팔려고하니 이익금 구십만 달러에 대하여 엄청난 CAPITAL GAIN TAX 를 내어야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건물을 자식에게 주기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였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유산을 통해 건물을 양도 하므로써, 어머니의 사망시에 싯가인 백만 달러가 산 가격이 되므로, 이익금이 전혀 없게 됩니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사례라 보겠습니다.